

L2-영어 수준별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의 L2 관사습득과 사용양상*

김한별

(전남대학교)

백승현**

(전남대학교)

Kim, Hanbyeol, & Baek, Seunghyun. (2022). L2-English article acquisition and usage patterns of L1-Korean L2-English high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their L2 grammatical ability.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6(4), 113-134.

This study explored the choice of definite article *the* and indefinite article *a(n)* of fifty-six adolescent L1-Korean L2-English learners in the four semantic contexts: [+definite, +specific], [+definite, -specific], [-definite, +specific], and [-definite, -specific] and a writing test depending on their L2 grammatical a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their L2 grammatical ability, in the forced-choice test, overall, they overuse *the* in the indefinite context and *a(n)* in the definite context. In particular, they are unlikely to properly use *a(n)* in the [-definite, +specific] context and most likely to fluctuate between [-definite, +specific] and [-definite, -specific]. Additionally, in the writing test, it was found that they use *a(n)* more accurately than *the* in noun phrases (NPs) and tend to dominantly omit the articles, *a(n)* and *the* prior to NPs. These results propose that adolescent L1-Korean L2-English learners may have more difficulties in acquiring [\pm specificity] than [\pm definiteness] and they seem to acquire the indefinite article, *a(n)* earlier than the definite one, *the*, mapping [-definiteness] onto *one*, the numeric number on singular nouns. The possible linguistic reasons for their L2-English article choice and acquisition order along with their textbook analysi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further discussed in detail.

I. 서론

제 2언어(L2)-영어 관사 습득에 관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모국어(L1)에 관사 체계가 없는 화자들이 관사 습득과 정확한 사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Ganzhao, 2016; Ionin, et al., 2004; Maratsos, 2009; Robertson, 2000; Snape, 2006). 특히 부정관사 *a(n)*, 정관사 *the*, 그리고 무관사, *zero*로 구성된 L2-영어 관사 체계는 초급 학습자나 중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영어에 능숙한 고급 학습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왔고 문어와 구어에서 높은 빈도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존재한다(Lardiere, 2004; White, 2003).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 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김한별, 교신저자: 백승현

한편 일반적으로 발생 되는 오류의 유형은 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누락’(1a),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대체’(1b),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하는 ‘추가’(1c)로 분류된다.

- (1) a. There is cell-phone charger on my desk. (a cell-phone charger)
 b. I have a desk in my room. A desk is yellow. (the desk)
 c. Some people want to obtain a help from others. (help)¹⁾

위에 제시된 관사의 오류들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왔다. 먼저 표현결손가설(Representational-Deficit Hypothesis: RDH, Hawkins, 2005)은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L2)의 통사적·의미적 등가물(syntactic-semantic equivalent)이 모국어(L1)에 존재하지 않으면 표적언어(target language)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명사 앞에 한정사를 붙여 명사구(noun phrase: NP)를 구성하는 영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명사 앞에 한정사를 붙이지 않아도 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고 의미상 전달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사 체계가 없는 한국어를 모국어(L1)으로 사용하는 L2-영어 학습자들에게 관사 ‘누락’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Cho, 2017). 다음으로 Ionin et al.(2004)이 주장한 변동가설(Fluctuation Hypothesis: FH)에 의하면 L2-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한정성(definiteness)과 구체성(specificity)²⁾이라는 의미적 특징들(semantic features)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학습자들은 관사선택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고 관사 ‘대체’의 오류를 겪는다. 나아가서 이러한 관사선택의 과정에서 L2-영어 학습자들은 학습자 언어(learner language)단계를 거치면서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관사체계를 모든 명사에 적용하여 사용하려는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로 인해 관사 ‘추가’ 오류를 범한다(Baek & Sarker, 2013). 위와 같은 상황에서 L1-한국어 L2-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n)*를 선택할 때 단순히 L1-한국어와 L2-영어의 명사구의 차이에 기인한 관사선택의 곤란뿐만 아니라 관사가 지닌 두 가지 의미적 특징인 구체성과 한정성의 상호작용과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관사 사용의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EFL 환경에서 성인들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L2-영어를 학습하는 L1-한국어 고등학생의 문법적 능력을 측정하여 언어능력에 따른 관사의 사용³⁾과 오류 범주 그리고 의미적 요인, 즉 한정성과 구체성의 습득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교과서 분석도 동시에 검토하여 L2-영어 관사의 올바른 선택과 성공적인 습득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L1-한국어와 L2-영어 명사구의 차이점

L1-한국어 L2-영어 학습자들의 관사습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어와 한국어의 명사구(Noun

1) 위의 예시들은 본 연구의 작문시험의 데이터에서 발췌하였다.

2) a. [+한정성] 화자와 청자가 명사구(NP)를 통해 독특한 개체의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b. [+구체성] 화자가 명사구(NP)를 통해 주목할 만한 속성을 지닌 독특한 개체를 청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Ionin et al., 2004, p. 5).

3) 본 연구의 관사사용 대상은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n)*의 사용으로 한다.

Phrase: NP)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는 명사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하고 보통명사를 다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 분류한다(Master, 1997). 위와 같이 분류된 명사 가운데 복수형 집합명사와 고유명사는 예시(2a)와 (2b)에 제시된 것처럼 한정사(determiner)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a. \emptyset Dogs are faithful animal
 \emptyset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b. \emptyset Water is good for our health.
 \emptyset 물은 우리 몸에 좋다.

반면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 지시사와 관사 같은 한정사를 명사 앞에 붙여 사용한다. 아래 예시를 보면 영어는 ‘토끼’라는 명사구를 구성할 때 부정관사(3a)를 사용하여 수량의 의미를 표현하고 정관사(3b)를 명사 앞에 붙여 한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3) a. A rabbit is running in the yard.
 b. The rabbit is running in the yard.
 c. ∅ 토끼가 마당에서 달리고 있다.

그러나 관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는 (3c)에 나타난 것처럼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상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고 문법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Cho, 2017). 물론 ‘이-’, ‘그-’, ‘저-’와 같은 한정사도 명사 앞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관사를 제외한 다른 한정사의 기능은 다루지 않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L2-영어 관사습득의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명사 앞에 사용되는 부정관사가 두 가지 의미적 특징, 즉 수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와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어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Park & Baek, 2021). 예를 들어 아래 예시(4a)에 제시된 ‘a car’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통해 수량(one)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됨과 동시에 불특정한 대상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하지만 예시(4b)에 제시되는 ‘a car’는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L2-영어 학습자들은 부정관사가 지닌 ‘하나(one)’라는 의미와 ‘어떤(any)’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 (4) a. There is a car in the park.
 공원에 차 한 대가 있다.
 b. I'm finding a new car because my old car was broken.
 나의 오래된 차가 고장 났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찾고 있다.

위와 같이 표적언어(L2)에 존재하는 언어적 특징과 구성요인이 모국어(L1)에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L2-영어 관사 오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표현결손가설(RDH: Hawkins, 2005)은 L2-영어의 통사·의미적 특징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L2-영어 관사습득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L1에서 L2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연동시켜 올바르게 재해석해줄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가 없다면 L2의 통사·의미적 요인과 특징들은 성공적으로 습득이 일어나지 않는다(Hawkins,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L1-한국어 L2-영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Baek & Sarker, 2013; Sarker & Baek, 2013)은 자연발화 상태의 작문시험에서 오류의 범주 가운데 ‘누락’이 ‘대체’와 ‘추가’보다 두드러지고 L2-영어 의미적 특징을 습득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관사의 의미적 특징과 변동가설

영어의 관사 체계는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적 특징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매개변수(language parameter)가 있지만, 구체성을 표기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Balenovic, 2014; Lyons, 1999). 따라서 Ionin et al.(2004)은 한정성(definiteness)과 구체성(specificity)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한정사구 [한정사 + 명사: Det + N]의 경우일 때.

- (5) a. [+한정성] 화자와 청자가 명사구(NP)를 통해 독특한 개체의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b. [+구체성] 화자가 명사구(NP)를 통해 주목할 만한 속성을 지닌 독특한 개체를 청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Ionin et al., 2004, p. 5)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 예시(6)를 보면 앞서 언급된 ‘a book’은 독특한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 (5a:한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정관사가 사용되었고 뒤에 언급된 ‘the book’은 그가 구매한 책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5b:구체성) 조건을 충족하여 정관사가 사용되었다.

- (6) He bought a book. The book is so interesting.

그러나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 아래 예시(7a)를 보면 화자와 청자가 이 경기의 우승자(the champion)에 존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정성]의 특징과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구체성]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예시(7b)에서는 동일하게 우승자(the champion)라는 [+한정성]의 의미가 있지만, (7a)와 다르게 우승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의 특징을 가진다.

- (7) a. I'd like to meet with the champion of this match - he is my best friend!
- b. I'd like to meet with the champion of this match - whomever he is; I am waiting for him to interview with as a sports reporter.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부정관사도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예시(8a)를 살펴보면 결혼하고자 하는 대상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지 않아 [-한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Jason이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 여성은 변호사라는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구체성]의 속성을 가진다. 한편 예시(8b)에서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한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의 특징을 가진다.

- (8) a. Jason hopes to marry a lawyer - event though he doesn't get along well with her.
- b. Jason hopes to marry a lawyer - I have no idea who it is.

따라서 앞서 제시된 예시(7)와 (8)을 통해 정관사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부정관사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으로 L2-영어 관사는 총 4개의 매개변수를 가진다. 따라서 Ionin et al.(2004)은 L2-영어 학습자들이 입력되는 언어적 매개변수의 양에 따라 혼동을 더 많이 일으켜 관사 선택상황에서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변동가설을 제시하였다.

(9) 변동가설(Fluctuation Hypothesis):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영어 관사선택의 경우

- a. 제 2언어 학습자들은 보편 문법(UG)과 매개변수(parameter)설정에 완전한 접근(full access)이 가능하다.
- b. 제 2언어 학습자들은 입력되는 매개변수(parameter)를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기 전까지 매개변수들 사이에서 변동을 일으킨다.

(Ionin et al., 2004 p. 16)

변동가설은 아래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L2-영어 학습자들은 관사의 매개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특히 맥락(b) [+한정성, -구체성]에서 정관사를 부정관사로 잘못 인식하고 맥락(c) [-한정성, +구체성]에서 부정관사를 정관사로 잘못 인식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관사선택 상황에서 '대체'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 1. 두 의미적 자질의 예측되는 변동지점

| | +한정성 | -한정성 |
|------|---------|----------|
| +구체성 | (a) the | (c) a(n) |
| -구체성 | (b) the | (d) a(n) |

이러한 변동가설을 L1-한국어 L2-영어 성인 화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맥락 (b)와 (c)에서 적절한 관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었고 앞서 <표 1>의 예측변동지점에서 '대체'의 오류가 지배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Sarker & Baek, 2013). 즉, L2-영어 학습자들은 학습자 언어 (learner language) 단계를 거치며 명사구 앞에 관사를 쓰지 않고 '누락' 시키는 오류와 불필요하게 관사를 붙이는 '추가' 그리고 관사를 서로 바꾸어 쓰는 '대체'의 오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총체적인 부담과 도전으로 인해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 L2-영어 관사의 습득

L2-영어 학습자들에게 명사구 구조와 의미적 특징들 이외에 관사선택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습득순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ardiere(2009)가 주장하는 특징조합접근법(feature-assembly approach)에 따르면 L1-영어 초기 학습자들은 단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서로 조합하여 습득한다고 한

다. 근본적으로 언어들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의해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지만, 기능어(function word)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언어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한정사(determiner) 중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 명사구(NP)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특징조합접근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명사구 내에서 관사가 가지는 기능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정성], [단수]. 그러나 영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정성을 표현하는 언어매개변수가 존재하지만, 구체성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매개변수가 없기에 별도로 정보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습득이 어렵다. 특징조합접근법을 기반으로 관사의 기능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0) 관사의 기능적 특징

- a. [한정사, + 한정성, + 단수] = 'the' (the car)
- b. [한정사, + 한정성, - 단수] = 'the' (the chairs)
- c. [한정사, - 한정성, + 단수] = 'a' (a book)

(Zdorenko & Paradis, 2012, p. 40)

제시된 예시(10a)와 (10b)는 [+한정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10c)만 [-한정성]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L1-영어 초기 학습자들은 [+한정성]의 특징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음으로 부정관사가 지닌 [-한정성, +단수]의 특징을 습득한다. 따라서 L1-영어 초기 학습자들의 특징습득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사 [+한정성] > (2) 부정관사 [-한정성, +단수]

이러한 근거는 L1-영어 학습자들은 수량과 (불)가산성[(un)countability] 그리고 한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정관사가 한정성만 고려하는 정관사보다 더 복잡한 과정과 결정을 하는데 기초하며 (Lardiere, 2009) 이러한 현상은 L2-영어 학습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습득순서로 나타난다(Zdorenko & Paradis, 2008).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Zdorenko와 Paradis(2012)는 ESL 환경에서 중국어, 인도어, 아랍어, 스페인어를 L1으로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L2-영어 관사습득양상을 조사하여 L1에 상관없이 정관사를 부정관사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하였고 L1-영어 학습자들의 관사습득순서와 비슷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의 L2-영어 학습교재 분석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요인들 이외에 본 연구는 L1-한국어 L2-영어 학습자의 관사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국 고등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5개의 출판사 능률, YBM, 동아, 비상, 천재의 고등학교 교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정관사는 구체성과 한정성의 의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최상급(11a), 서수(11b)를 표기하기 위해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정관사 뒤에 형용사를 붙여 사용하는 용법(11c)만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정관사도 한정성과 구체성의 특징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수량사의 개념(11d)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 (11) a.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dominant buildings in the world.
- b. He believed honoring this contract is the first step for you to take responsibility in your life.

- c. The rich have property rights.
 d. There is a nice book under the table.

결국 L1-한국어 L2-영어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적 특징을 적절하게 습득하기보다 관용적 표현을 더 많이 습득하여 사용하게 되고 부정관사의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 이외에 구체성과 한정성의 의미적 특징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부정관사의 의미적 특징보다는 수량사의 개념을 더 익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L2-영어 관사를 사용하고 습득할 때 L1-한국어와 L2-영어 간의 명사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L2-영어 관사가 지닌 구체성과 한정성의 의미적 특징의 복잡성은 추가적인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L2-영어 관사를 습득하는 언어 환경과 노출되는 교재의 영향에 따라 관사 습득순서와 사용양상이 L1-영어 학습자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의 L2-영어 문법능력을 측정하여 L2-영어 수준별 관사선택 양상을 파악하고 관사습득순서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 (1) L2-영어 문법능력에 따라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은 4가지 맥락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상황에서 관사선택과 오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L2-영어 문법능력에 따라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은 발화능력(productive skill)을 사용해야하는 작문환경에서 관사의 사용양상과 오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K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가 의사를 표현한 56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학입학시험을 위해 영어 공부를 3년 이상 진행해온 학생들로 모두 고등학교 정규 영어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학생 26명과 여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령은 18.5세였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1)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클로즈 테스트는 L2-영어 문법능력을 측정하여 실험참가자들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Baek과 Sarker(2013)에 의해 사용된 자료를 수정·고안하여 제작되었다. 하나의 지문 안에 제시된 특정한 문법적인 요소에 14개의 빈칸을 두어 구성된 클로즈 테스트(rational deletion cloze test)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지문은 실험참가자들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사용된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렉사일(Lexile)⁴⁾ 950L로 구성하였다. 지문에 제시된 빈칸은 7개의 문법범주 관사, 대명사, 전치사, 연결사, 관계대명사, 조동사, 동사가 사용되었고 각각의 빈칸이 문법적 용도에 맞게 채워지도록 구성되었다(부록1 참고).

2) 선택유도시험(Forced-choice Elicitation Test)

선택유도 시험은 Ionin et al.(2004)의 자료를 토대로 수정·고안하여 25개의 대화로 구성하였고 각 상황에 맞는 관사를 선택하도록 제작되었다. 각 맥락별 5문항으로 총 25개의 문항은 [관사+단수 명사]의 구조로 구성되었고 제시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1) [+한정성, +구체성], (2) [+한정성, -구체성], (3) [-한정성, +구체성], (4) [-한정성, -구체성] (5) [무관사]. 실험참가자들은 정관사 *the*, 부정관사 *a(n)*, 무관사 *zero*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시되었다. 각 맥락별 예시가 아래 제시되었다. 5개 문항의 [무관사] 맥락은 이 연구의 핵심인 다른 4가지 맥락의 문항을 교란하기 위해 필러문항(filler item)으로 사용되었다.

(12)

a. Two friends' conversation [+한정성, +구체성]

Friend 1 : My son Jason loves that new comic book featuring Micky mouse.

Friend 2 : Well, then he is very lucky! Tomorrow, I will have a meeting with (*the* / an / zero) author of "Micky mouse". - he is my best friend. So I can get his autograph for your son.

Friend 1 : Wow! Really? He will be very happy!

b. After a tennis championship [+한정성, -구체성]

Reporter : Excuse me. Can you let me in?

Guard : What do you need?

Reporter : I am a reporter from CNN. I need to talk to (*the* / a / zero) winner of this championship. But I don't know who he is, so can you help me?

Guard : Yes. Come in and follow me.

c. In a crowd of people at an airport's greeting area for arrivals. [-한정성, +구체성]

Man : Do you work here?

Security : Yes.

Man : Oh, then you could help me? I am looking for (the / *a* / zero) brown-haired man. I know he flew in on Flight 12.

Security : There are a lot of brown-haired men. Can you be more specific?

d. Two friends' conversation [-한정성, -구체성]

Friend 1 : I tried to call you last night, but your line was busy.

Friend 2 : Sorry, at that time my husband was talking to (the / *a* / zero) friend.

4) 한국고등학교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단어 수준은 900L~1100L 사이에 해당한다.

Friend 1 : I see, then can we have lunch together today?

Friend 2 : Sure!

e. Two friends' conversation [무관사]

Friend 1 :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It was so beautiful.

Friend 2 : Where did you visit in the U.S.?

Friend 1 : As you know I am a big fan of Major league baseball, especially the L.A. Dodgers. so I visited (the / a / **zero**) Los Angeles Dodgers stadium and met many players!

3) 작문시험(Writing Test)

주어진 주제에 관해 실험참가자들이 보여주는 관사 사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Baek과 Sarker(2013)에 의해 사용된 작문시험지를 수정·고안하여 제작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발화능력(productive skills)을 사용하여 제시된 3개의 주제를 7문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지시되었다. 선택유도시험과 다르게 명사 앞에 관사를 제외한 다른 한정사(determiner)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었다: 첫째, 학생들은 지시사(this, that, these, those)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되었다. 둘째, 물체를 지칭할 때 소유격(his, her, their, its, our)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되었다(Baek & Sarker, 2013, p. 93). 실험에서 사용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 Talk about one of countries you want to visit. Describe the reasons why you want to visit it.
- b. Describe your room with specific features.
- c. Talk about a job you want to get in the future with specific reasons.

4) 실험 절차 및 코딩

각 시험은 40분씩 3개의 영역으로 총 2시간에 걸쳐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선택유도 시험은 각 문항별 점수는 정확하게 사용한 경우만 각 1점씩 부여하였고 필러문항(filler item)으로 사용된 [무관사] 맥락의 5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작문시험의 경우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TESOL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7년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연구자가 채점을 진행하였다. 원어민 화자와 연구자는 작문시험에 관사가 사용된 모든 명사구를 표시하고 [±구체성]의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성]만을 고려하여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n)*의 두 가지 맥락에서 정확하게 사용한 경우와 오류의 경우 '누락', '대체', 그리고 '추가'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모든 명사구의 구별을 완료한 후 진행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IV. 결과와 분석

1.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L2-영어 문법능력을 측정한 클로즈 테스트 점수를 K-평균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진행하여 실험참가자들을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위집단($M = 7.04$, $SD = 2.97$)과 하위집단($M = 3.21$, $SD = 3.97$)으로 구분하였고 두 집단의 문법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F(1, 55) = 16.56$, $p < .05$). 한편 7개의 문법범주중 하나인 관사의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하여 두 집단의 관사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1, 55) = 12.07$, $p < .05$).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Levene 검정 결과에서 등분산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5$).

표 2.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N = 56$)

| 집단 | N | 평균(M) | 표준편차(SD) |
|------|-----|-----------|--------------|
| 상위집단 | 28 | 7.04 | 2.97 |
| 하위집단 | 28 | 3.21 | 3.97 |

최고점수=14점

2. 선택유도시험(Forced-choice Elicitation Test)

관사의 4가지 맥락별 관사의 사용(*the, a, zero*)을 비율로 나타낸 <표 3>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정관사의 정확도는 61.43%와 64.29%로 나타났고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부정관사의 정확도는 55.36%와 70.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관사의 정확도가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부정관사의 정확도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은 L2-영어의 부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고 [-한정성, +구체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맥락에 따른 관사의 사용비율(%)

| 맥락 \ 관사유형 | +한정성 +구체성 | +한정성 -구체성 | -한정성 +구체성 | -한정성 -구체성 |
|-----------|---------------|---------------|---------------|---------------|
| | <i>The</i> | <i>The</i> | <i>A</i> | <i>A</i> |
| The | 61.43% | 64.29% | 26.41% | 19.39% |
| A | 28.21% | 28.93% | 55.36% | 70.00% |
| Zero | 10.36% | 6.78% | 18.23% | 10.61% |

표 4. 맥락에 따른 집단별 관사 사용 빈도와 비율(%)

| 관사유형 | 맥락 | +한정성 | +한정성 | -한정성 | -한정성 |
|----------------------|------|------------------------------|------------------------------|------------------------------|-------------------------------|
| | | +구체성 | -구체성 | +구체성 | -구체성 |
| 상위 집단 (N = 28) | The | 98 (70.00%) | 98 (70.00%) | 33 (23.57%) | 18 (12.86%) |
| | A | 34 (24.28%) | 38 (27.15%) | 86 (61.43%) | 114 (81.43%) |
| | Zero | 8 (5.72%) | 4 (2.85%) | 21 (15.00%) | 8 (5.71%) |
| 하위 집단 (N = 28) | The | 74 (52.86%) | 82 (58.58%) | 41 (29.29%) | 36 (25.71%) |
| | A | 45 (32.14%) | 43 (30.71%) | 69 (49.29%) | 82 (58.57%) |
| | Zero | 21 (15.00%) | 15 (10.71%) | 30 (21.42%) | 22 (15.72%) |

각 집단별 맥락에 따른 총 빈도 140(5문항*28명=140)

맥락별 관사의 선택에서 나타난 반응을 집단별로 구별하여 제시한 <표 4>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집단의 경우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81.43%)를 보여주고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61.43%)를 보여주었고 하위집단의 경우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각각 58.58%와 58.27%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49.29%)를 보여주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관사 선택상황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에서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각각 70%로 같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하위집단도 상위집단의 정확도보다 낮지만 52.86%와 58.58%로 크게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관사 선택상황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에서 상위집단은 61.43%와 81.43%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49.29%와 58.57%로 정관사를 사용하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차이보다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차이가 집단에 상관없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L2-영어 문법능력과 상관없이 학습자들은 [-한정성, +구체성]의 정확도가 가장 낮고 부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구체성]의 구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각 맥락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 맥락 | 구분 | 평균(M) | 표준편차(SD) |
|----|-------------|-------|----------|
| | [+한정성 +구체성] | 3.16 | 1.69 |
| | [+한정성 -구체성] | 3.21 | 1.26 |
| | [-한정성 +구체성] | 2.73 | 1.18 |
| | [-한정성 -구체성] | 3.44 | 1.14 |

맥락별 최고점=5점

맥락별 정확도를 평균으로 나타낸 <표 5>를 보면 학습자들은 부정관사[-한정성, -구체성: M = 3.44]의 맥락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한정성, +구체성: M = 2.73]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며 부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4(맥락)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행한 결

과 맥락간에 차이가 나타났다($F(1, 55) = 657.84, p < .05, \eta^2 = .09$).⁵⁾

표 6. 집단별 각 맥락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 집단 | 맥락 | +한정성 | +한정성 | -한정성 | -한정성 |
|------|----|------------|------------|------------|------------|
| | | +구체성 | -구체성 | +구체성 | -구체성 |
| 상위집단 | | 3.61(1.54) | 3.53(1.29) | 2.92(1.18) | 4.03(1.23) |
| 하위집단 | | 2.71(1.73) | 2.92(1.18) | 2.53(1.17) | 2.85(1.35) |

맥락별 최고점=5점

맥락별 관사의 선택에서 나타난 평균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위에 제시된 <표 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상위집단의 맥락별 평균이 하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위집단의 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 $M = 3.61$]과 [+한정성, -구체성: $M = 3.53$] 맥락은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부정관사의 경우 [-한정성, +구체성: $M = 2.92$]과 [-한정성, -구체성: $M = 4.03$] 맥락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집단의 경우 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 $M = 2.71$]과 [+한정성, -구체성: $M = 2.92$] 맥락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관사의 경우 [-한정성, +구체성: $M = 2.53$]과 [-한정성, -구체성: $M = 2.85$] 맥락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4가지 맥락에서 집단 간의 관사선택을 비교하기 위해 2(집단) \times 4(맥락) 분할 반복측정분산분석(Split-plot repeated-measures ANOVA)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효과($F(1, 54) = 782.76, p < .05, \eta^2 = .09$)와 맥락의 효과($F(1, 3) = 3.32, p < .05, \eta^2 = .06$)가 존재하였지만, 집단과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위의 결과는 집단 사이의 관사선택에 차이가 나고 집단 내의 맥락별 관사선택의 차이가 나는 것을 나타낸다. 즉, L2-영어 문법 능력과 관사의 맥락은 L2-영어 학습자의 관사선택 결정에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어지는 심층 분석으로 관사의 한정성과 구체성이 관사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한정성) \times 2(구체성)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정성의 맥락은 관사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p > .05$). 그러나 구체성의 맥락은 관사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F(1, 55) = 9.76, p < .05, \eta^2 = .15$) 두 맥락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1, 55) = 4.50, p < .05, \eta^2 = .07$). 이 결과는 학습자들이 관사선택 결정에서 한정성과 구체성의 맥락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사선택에 영향을 준 맥락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6번의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행하였다. <표 7>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그리고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평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차이($\eta^2 = .18$)가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차이($\eta^2 = .07$)보다 크게 나타났다.⁶⁾

5) 사후분석(Bonferroni pair-wise comparison)의 결과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6) 이 결과는 앞서 <표 5>를 토대로 진행한 사후분석(Bonferroni pair-wise comparison) 결과와 같은 것이다.

표 7. 맥락별 한정성과 구체성의 평균 비교

| 맥락 | <i>F</i> | <i>p</i> | η^2 |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76 | > .05 | .01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2.46 | > .05 | .04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1.45 | > .05 | .03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4.16 | < .05 | .07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96 | > .05 | .01 |
|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 12.52 | < .05 | .18 |

표 8. 맥락별 관사 오류의 평균과 표준편차

| 맥락 | 오류 반응 | 평균(<i>M</i>) | 전체평균 | 표준편차(<i>SD</i>) |
|----------|-------|----------------|------|-------------------|
| +한정성+구체성 | a | 1.38 | 1.84 | 1.43 |
| | the | 0.46 | | 0.93 |
| +한정성-구체성 | a | 1.45 | 1.79 | 1.19 |
| | the | 0.34 | | 0.61 |
| -한정성+구체성 | the | 1.33 | 2.27 | 1.09 |
| | a | 0.94 | | 0.79 |
| -한정성-구체성 | the | 0.98 | 1.56 | 0.99 |
| | a | 0.58 | | 0.78 |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그리고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관사선택의 오류 선택유형을 나타낸 <표 8>을 제시한다. 먼저 4가지 맥락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오류의 형태를 살펴보면 정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부정관사(각각 $M = 1.38$, $M = 1.45$)를 무관사(각각 $M = 0.46$, $M = 0.34$)보다 더 많이 오용하고 있고 부정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정관사($M = 1.33$, $M = 0.98$)를 무관사(각각 $M = 0.94$, $M = 0.58$)보다 더 많이 오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관사 선택유도 상황에서 ‘대체’ 오류가 ‘누락’의 오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정성, +구체성: $M = 2.27$]의 맥락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보여주고 [-한정성, -구체성: $M = 1.47$]의 맥락에서 가장 낮은 오류를 보여준다. 위의 결과는 앞서 제시된 <표 3>의 [-한정성, +구체성: 55.36%]의 맥락이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과 [-한정성, -구체성: 70.00%]이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정관사를 사용하는 오류($M = 1.33$)가 무관사 오류($M = 0.94$)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한정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성]의 특징을 의존하여 [+한정성]의 특징을 가진 정관사를 과도하게 오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오류가 가장 적은 이유는 [-구체성]의 특징을 [-한정성]으로 동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습자들은 [+구체성]의 특징을 정관사로 생각하고 [-구체성]은 부정관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추정들은 <표 5>에 나타난 [-한정성, +구체성 $M = 2.73$]과 [-한정성, -구체성 $M = 3.44$]의 가장 큰 정확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L2-영어 학습자들은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 변동가설(Fluctuation Hypothesis: Ionin et al., 2004)의 지점으로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구체성]을 정관사로 인식하는 오류보다 [+한정성, -구체성]의 맥락에서 [-구체성]의 특징을 부정관사로 인식하는 오류가 더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 작문시험(Writing Test)

작문시험은 앞서 진행된 선택유도시험과 다르게 학습자들은 제시되는 조건에 맞추어 정해진 답이 없이 자유롭게 발화능력(productive skill)을 사용하는 시험으로 명사구를 구성할 때 한정성과 구체성을 완벽히 고려하며 사용하였다고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명사구의 [±한정성]만을 고려하여 정확도, '누락', '대체', '추가' 총 4가지 범주로 명사구를 분석하였다.

표 9. 관사 사용의 범주별 빈도와 비율(%)

| 정확도 | 누락 | 대체 | 추가 |
|--------|--------|-------|-------|
| 283 | 120 | 15 | 21 |
| 64.46% | 27.33% | 3.43% | 4.78% |

총 명사구 수: 439

전반적인 관사의 정확도와 '누락', '대체', '추가'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표 9>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정확도범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64.46%)을 보여주었고 오류 범주에서는 '누락'(27.33%)의 비율이 '대체'(3.43%)와 '추가'(4.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자연스러운 발화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작문시험에서 관사의 '누락'은 오류 범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0. 관사 유형별 범주의 빈도와 비율(%)

| 관사 유형 | 정확도 | 누락 | 대체 | 추가 |
|-------|-------------|------------|------------|------------|
| 정관사 | 116(40.99%) | 40(33.33%) | 12(80.00%) | 10(47.67%) |
| 부정관사 | 167(59.01%) | 80(66.67%) | 3(20.00%) | 11(52.33%) |
| 총합 | 283 | 120 | 15 | 21 |

관사 사용의 4가지 범주를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누어 제시한 <표 10>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확도에서 부정관사의 정확도(59.01%)가 정관사의 정확도(40.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부정관사를 정관사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오류의 양상에서 관사유형에 상관없이 '누락'의 오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11. 집단과 관사 유형별 범주의 빈도와 비율(%)

| 집단 | 관사 유형 | 정확도 | 누락 | 대체 | 추가 |
|-------|-------|-------------|------------|-----------|-----------|
| 상위 집단 | 정관사 | 87(43.28%) | 8(18.18%) | 6(85.71%) | 6(54.54%) |
| | 부정관사 | 114(56.72%) | 36(81.82%) | 1(14.29%) | 5(45.46%) |
| 하위 집단 | 정관사 | 29(35.37%) | 32(42.11%) | 6(75.00%) | 4(40.00%) |
| | 부정관사 | 53(64.63%) | 44(57.89%) | 2(25.00%) | 6(60.00%) |

관사의 유형별 4가지 사용 범주를 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한 <표 11>을 보면 상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정확히 사용한 관사 빈도가 높았고 정관사(43.28%)보다 부정관사(56.72%)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 한편 상위집단의 사용 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위집단 역시 부정관사(64.63%)의 정확도가 정관사(35.37%)보다 높게 나타났다. L2-영어 문법능력 수준별 관사의 사용 빈도와 정확도에 근거해 볼 때 부정관사의 습득이 정관사의 습득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관사 사용 범주의 평균과 표준편차

| 범주 | 평균(M) | 표준편차(SD) |
|-----|-------|----------|
| 정확도 | 5.05 | 4.66 |
| 누락 | 2.14 | 2.99 |
| 대체 | 0.27 | 0.59 |
| 추가 | 0.37 | 0.71 |

관사의 4가지 사용 범주에 대한 평균을 제시한 <표 12>를 보면 학습자들은 관사의 정확도($M = 5.05$)가 오류 범주들('누락': $M = 2.14$, '대체': $M = 0.27$, '추가': $M = 0.37$)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발화 능력을 사용할 때 학습자들은 오류 범주에서 '누락'은 '대체'와 '추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의 4가지 사용 범주에 대한 집단별 평균을 제시한 <표 13>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위집단의 정확도(정관사: $M = 3.11$, 부정관사: $M = 4.07$)가 하위집단의 정확도(정관사: $M = 1.06$, 부정관사: $M = 1.89$)보다 높고 각 집단 별로 부정관사의 정확도가 정관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류 유형들 가운데 집단에 상관없이 '누락'은 '대체'와 '추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확한 사용의 범주를 기준으로 2(집단)x2(관사유형) 반복측정분산(Repeated-measures ANOVA)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사 유형의 차이가 있고($F(1, 54) = 61.51, p < .05, \eta^2 = .14$) 집단의 효과 역시 존재하였지만($F(1, 54) = 33.70, p < .05, \eta^2 = .09$)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집단 간의 관사의 정확도 차이가 존재하고 관사의 유형에서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정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L2-영어 문법능력에 따라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관사의 정확도가 높고 부정관사의 정확도가 정관사의 정확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별로 관사 사용의 오류 범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집단)x3(오류범주)분할반복측정분산(Split-plot repeated-measures ANOVA)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오류 범주의 효과가 존재하지만($F(1, 54) = 18.40, p < .05, \eta^2 = .25$) 집단 간의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ps > .05$). 이는 집단에 상관없이 관사의 오류 범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류 범주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Bonferroni pair-wise)을 진행한 결과 '누락'과 '대체', '누락'과 '추가'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ps < .05$). 이는 작문과 같은 자연발화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의 L2-영어 문법능력과 상관없이 관사의 '누락'이 가장 빈번한 오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 맥락에 따른 집단별 관사선택의 평균(표준편차)

| 집단 | 관사 유형 | 정확도 | 누락 | 대체 | 추가 |
|------|-------|------------|------------|------------|------------|
| 상위집단 | 정관사 | 3.11(3.10) | 0.29(0.71) | 0.21(0.42) | 0.21(0.50) |
| | 부정관사 | 4.07(2.36) | 1.29(1.71) | 0.36(0.19) | 0.18(0.39) |
| 하위집단 | 정관사 | 1.04(1.82) | 1.14(1.96) | 0.21(0.50) | 0.14(0.45) |
| | 부정관사 | 1.89(2.51) | 1.57(2.57) | 0.71(0.26) | 0.21(0.50)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L2-영어 문법능력에 따라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이 선택유도측정에서 제시된 L2-영어 관사의 4가지 맥락에서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

성] 관사선택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맥락의 제한 없이 발화능력을 사용하는 작문환경에서 관사 사용과 오류 유형을 관찰하여 관사습득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택유도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맥락에서 부정관사와 정관사 그리고 무관사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대체’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도 비율과 평균 측면에서 [-한정성, -구체성: $a(n)$] 맥락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한정성, +구체성: $a(n)$] 맥락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정관사 [+한정성, +구체성: *the*]과 [+한정성, -구체성: *the*] 맥락에서 정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관사의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가장 큰 정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L2-영어 문법능력으로 분류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관사선택의 정확도가 더 높았고 집단 내의 맥락별 관사선택의 정확도는 [+한정성, -구체성: *the*]과 [-한정성, +구체성: $a(n)$] 맥락과 [-한정성, +구체성: $a(n)$]와 [-한정성, -구체성: $a(n)$] 맥락 사이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L2-영어 문법 능력과 관사의 맥락은 L2-영어 학습자의 관사선택 결정에 기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L2-영어 학습자들은 관사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변동가설(FH: Ionin et al., 2004)의 맥락 중 [-한정성, +구체성]에서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EFL 환경의 L1-한국어 고등학생들에게도 [-한정성, +구체성] 맥락이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의미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이들이 보여준 오답유형 ‘대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한정성, +구체성] 부정관사 $a(n)$ 맥락에서 [+구체성]을 정관사, *the*로 인식하고 [+한정성, -구체성] 정관사 *the* 맥락에서 [-구체성]을 부정관사 $a(n)$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정성, +구체성] 부정관사 맥락에서 정관사를 선택하는 ‘대체’ 오류가 [+한정성, -구체성] 정관사 맥락에서 부정관사로 선택하는 ‘대체’ 오류보다 더 크기에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의 경우 L2-영어 문법능력과 상관없이 매개변수 [\pm 한정성]의 특징보다 [\pm 구체성]의 특징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정관사 맥락의 [-구체성] 특성보다 부정관사 맥락의 [+구체성] 특성에 성공적으로 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m 구체성]은 L1-영어 초기화자들에게도 특징을 조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구체성에 적절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Hegarty, 2005; Lardiere, 2009) 위와 같은 현상은 L2-영어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한편 [-구체성]을 [-한정성]의 부정관사 $a(n)$ 으로 동등하게 간주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한정성, -구체성] 맥락과 [+구체성]을 [+한정성]의 정관사 *the*로 인식하여 변동가설에서 주장한 예측 지점 중에 하나인 가장 정확도가 낮은 [-한정성, +구체성] 맥락과의 차이는 심리언어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EFL 환경의 L1-한국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정성, -구체성]과 [-한정성, +구체성] 맥락에서 그들의 관사선택 양상을 조사한 Sarker와 Baek(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L1-한국어 L2-영어 성인 학습자들도 변동가설의 예측처럼 위의 두 맥락에서 올바른 관사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연발화 환경의 작문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L2-영어 문법능력에 따른 집단의 차이가 있었고 관사 유형에서는 정관사보다 부정관사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EFL환경의 L1-한국어 L2-영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Baek & Sarker, 2013)에서 성인 학습자들은 정관사의 정확도가 부정관사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충된다. 또한 ESL환경에서 학습하는 L2-영어 초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Zdorenko & Paradis, 2012)를 통해 나타난 습득순서: (1) 정관사 [+한정성] >

(2) 부정관사 [-한정성, +단수]와는 다른 습득순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L2-영어 문법능력 수준별 관사의 사용 빈도와 정확도(표 11 참조)에 근거해 볼 때 부정관사의 경우 수량사의 개념을 먼저 습득하여 정관사보다 부정관사를 먼저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정성] $a(n)$ 의 의미를 수량의 개념인 ‘하나(one)’로 연동하여 대부분의 단수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고 실제로 이 학생들의 아래 예시(13)와 같은 167개의 부정관사의 정확한 사용에서 단수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수량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140번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13) There is a desk and a chair in my room.

또한 이러한 수량적 의미전달에 의존한 부정관사 선택의 근거는 앞서 언급한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도 찾을 수 있다.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교과서에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내재하고 있는 한정성과 구체성의 의미적 특징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점과 교과서 교육과정내용 중 부정관사의 수량적 의미를 구성상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관사의 관용적 용법인 최상급과 서수를 표기하기 위해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형용사 앞에 정관사를 붙여 사용하는 용법만이 제시만 제시되고 있기에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한정성]의 부정관사 $a(n)$ 의 의미를 ‘하나(one)’로 연동하여 부정관사의 표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EFL환경에서 L2-영어 학습자들에게 노출되는 교재의 내용과 교육과정은 관사의 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이 작문시험에서 보여준 관사의 오류범주를 살펴보면 ‘누락’의 오류가 가장 주된 오류로 나타났다. 이 학습자들이 관사의 ‘누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L1-한국어와 L2-영어의 명사구(NP)구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L2-영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지시사와 관사를 붙여 명사구를 구성하지만, L1-한국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지시사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명사구를 구성하여 의미전달에 지장이 없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L2-영어 관사를 지배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ho, 2017). 이와 같은 오류 현상은 앞서 L1-한국어와 L2-영어의 통사-의미적 특징들을 서로 연동시켜 올바르게 재해석해줄 수 있는 매개변수가 없다면 표적언어의 특징을 올바르게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 표현결손가설(RDH: Hawkins, 2005)과 일맥상통하고 L2-영어 관사의 통사-의미적 특징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가(parameter) L1-한국어에 존재하지 않기에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관사선택유도시험의 결과를 통해 [±구체성] 특징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었고 작문환경에서 ‘누락’ 현상이 지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L2-영어 관사의 의미적 특징 [±한정성]과 [±구체성]의 올바른 습득과 관사의 ‘누락’ 현상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학습 활동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먼저 관사의 의미적 특성의 습득을 돕기 위해 L2-영어 교사는 구체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관사가 지닌 의미적 특징, 구체성과 한정성에 대한 개념 인지를 명시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한정성의 유무는 ‘화자와 청자가 명사구에서 지칭하는 독특한 대상(사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가?’로 판단하고 구체성의 유무는 ‘화자가 명사구에서 지칭하는 독특한 대상(사물, 사람)을 언급하며 그 독특한 개체가 주목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Jane은 학생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래의 예시(14)와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4a)문장의 경우 화자, Marry와 청자 John은 Jane

이 속한 학생회 회장(the president)의 존재를 공유하며 알고 있는 상태, 즉 [+한정성] 맥락에서 화자, Marry는 학생회 회장(the president)의 이름이 Jason Luke이라는 것을 제공하며 그의 품성(friendly)을 묘사하고 있기에 [+구체성]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14b) 문장의 경우 화자, Marry와 청자 John은 학생회 회장(the president)의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한정성]이지만 화자, Marry는 학생회 회장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I'm looking for Jane. Is she home? (over a phone)

Marry: Yes, but she is on the phone.

- (14) a. Jane is talking to the president of her student committee-Jason Luke and he is very friendly.
 b. Jane is talking to the president of her student committee. I'm afraid I don't know who it is-but I know this is a really important conversation for Jane.

한편 'Jessica는 그녀의 대학에서 만난 친구를 방문 중이다'라는 표현을 아래의 예시(1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a)의 경우 화자, Marry와 청자 John은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a friend)에 관한 존재와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 즉 [-한정성] 맥락이지만 화자, Marry는 한 친구(a friend)의 이름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 친구(a friend)라는 독특한 개체에 주목할 만한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구체성]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15b)의 경우 화자, Marry와 청자 John은 대학에서 알게 된 한 친구(a friend)에 관한 존재와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 즉 [-한정성] 맥락에서 화자, Marry는 한 친구(a friend)에 관한 어떠한 정보 정보와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I haven't seen Jessica for a while. What is up to her?

Marry:

- (15) a. Jessica is visiting a friend from her college-her name is Monika and she lives in New York now.
 b. Jessica is visiting a friend from her college-but I don't know exactly who that person is.

다음으로 관사의 '누락'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L2-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명사구를 구성하기에 관사사용을 위한 명사의 분류체계 <그림 1>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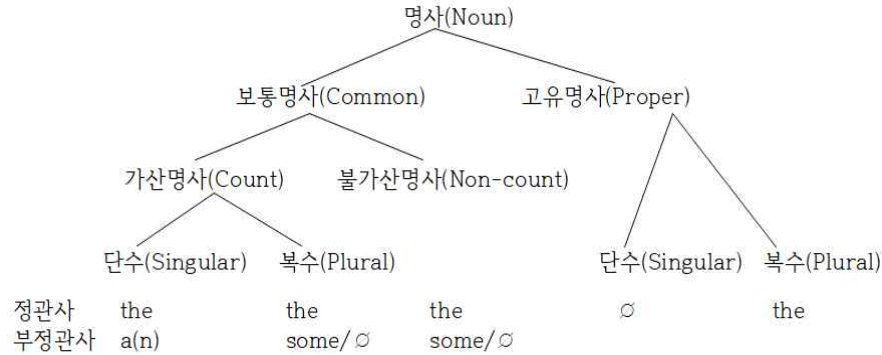


그림 1. Celce-Murcia and Larsen-Freeman's (1999) 관사사용을 위한 명사의 분류체계도 (p. 272)

먼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별하고 고유명사인 경우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단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무관사, zero를 사용하고 복수인 경우 정관사, the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보통명사의 경우 가산성과 불가산성을 고려하여 단수가산명사의 경우에만 부정관사 a(n)를 명사 앞에 붙여 사용하고 단수/복수 가산명사의 경우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고 불가산명사의 경우 the 또는 무관사, zero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관사사용의 용법의 설명으로서 지칭하고자 하는 명사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유한 성질을 지닌 대상, 앞에서 언급된 대상이거나 또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Scott, 2009, p. 90). 또한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거나 단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관사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여 L2-영어 학습자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는 관사가 '누락' 되는 경우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EFL환경의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유도시험과 작문시험으로만 측정을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관사가 가진 의미적 특징 특히, 구체성의 의미적 자질은 담화 상황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L1-한국어 L2-영어 학습자들의 구어발화상황에서 관사사용의 측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L2-영어 관사습득의 발달과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L1-한국어 L2-영어 아동 학습자들을 포함하는 횡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Baek, S., & Sarker, B. (2013). Accounting for L2 article choice sensitivity on Korean EFL learners' grammatical ability.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83-113.
- Balenovic, K. (2014).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by Croatian primary school students in early English foreign language learning.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7), 436-440. doi: 10.12691/education-2-7-1
- Cho, J. (2017). The acquisition of different types of definite noun phrases in L2-English.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21*(3), 367-382. doi: 10.1177/1367006916629577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Heinle & Heinle.
- Ganzhao, S. (2016). Th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by second language learners: The sequence, differences, and difficulties. *Second Language Research, 6*(1), 1-8.
doi: 10.1177/2158244016635716
- Hawkins, R. (2005). Explaining full and partial success in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grammatical properties. *Second Language, 4*, 7-25.
doi: 10.11431/secondlanguage2002.4.0_7
- Hegarty, M. (2005). *A feature-based syntax of functional categories: The structure, acquisition, and specific impairment of functional systems*. Mouton de Gruyter.
- Ionin, T., Ko, H., & Wexler, K. (2004). Article semantics in L2-acquisition: The role of specificity. *Language Acquisition, 12*(1), 3-69.
- Lardiere, D. (2004). Knowledge of definiteness despite variable article omiss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Brugos, L. Micciulla, & C. E. Smith (Eds.), *BUCLD 28 Proceedings* (pp. 328-339). Cascadilla Press.
- Lardiere, D. (2009). Some thoughts on the contrastive analysis of featur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25*, 173-227.
doi: 10.1177/0267658308100283
- Lyons, C. (1999). *Defin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atsos, M. (2009). *The use of definite and indefinite reference in young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ter, P. (1997). Th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system: Acquisition, function, and pedagogy. *System, 30*, 331-338. doi: 10.1016/S0346-251X(97)00010-9
- Park, J., & Baek, S. (2021). The acquisition of definite the and demonstrative that in direct and associative anaphoric in L1-Korean L2-English learners. *English Literature, 21*, 31(1), 212-235. doi: 10.35771/engdoi.2021.34.1.009
- Robertson, D. (2000). Variability in the use of the English article system by Chinese learners of English. *Second Language Research, 16*, 135-172. doi: 10.1191/026765800672262
- Sarker, K. B., & Baek, S. (2013). L2-English article use in semantic contexts.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7*(1), 21-49. doi: 10.16933/sfle.2013.27.1.75
- Snape, N. (2006).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determiner phrase by Japanese and Spanish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ssex.
- Scott, G. (2009). The English article system for Korean learners: Instructional approaches based on Korean learner deficiencies recognizing articles in text. *Kore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Journal, 10*(2), 83-92.
- Zdorenko, T., & Paradis, J. (2008). The acquisition of articles in child second language English: Fluctuation, transfer or both? *Second Language Research, 24*(2), 227-250.
doi: 10.1177/0267658307086302
- Zdorenko, T., & Paradis, J. (2012). Articles in child L2 English: When L1 and L2 acquisition

meet at the interface. *First Language*, 32(1), 38-62. doi: 10.1177/0142723710396797

White, L. (2003). Fossilization in steady state L2 grammars: Implications of persistent problems with inflectional morphology.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6, 128-141. doi: 10.1017/S1366728903001081

부록

부록 1: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You probably think that French fries _____ a legacy of France. This is not true. In fact, this delicious snack originates from Belgium. One day, _____ cook in Belgium was preparing a stew for his employer's guests. He _____ up several potatoes into small slices to be thrown into the stew. _____, while he was transferring the potato slices to the pot, _____ accidentally dropped them into the frying pan. _____ cook stared at the potatoes in dismay. He had no more potatoes left _____ his kitchen and he did not know what to serve his guests. While the cook _____ wondering what to do next, the aroma of fried potatoes enveloped the kitchen. The cook eyed the sizzling potatoes curiosity. He took a slice and tasted it. He realized it was delicious. His guests _____ are tasting it also found this dish delicious. _____ his guests asked his for the name of the dish, he told _____ it was 'Pommesfrites', _____ means 'fried potatoes' in French. From then onwards, people _____ order potatoes the Frenchway. These potatoes eventually came to be known as 'French fries'.

〈Korean Abstract〉

김한별, 백승현. (2022). L2-영어 수준별 L1-한국어 고등학생들의 L2 관사습득과 사용양상. *외국어교육연구*, 36(4), 113-134.

본 연구는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 56명을 대상으로 문법적 능력에 따라 4가지 맥락[+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 [-한정성, -구체성]에서 관사의 선택과 작문시험에서 관사 사용과 습득 양상을 파악하였다.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가지 맥락의 선택유도 시험에서 문법적 능력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은 부정관사 *a(n)*을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고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 부정관사 *a(n)*을 과도하게 오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들은 [-한정성, +구체성: *a(n)*]의 맥락에서 가장 정확도가 낮았고 [-한정성, +구체성: *a(n)*]과 [-한정성, -구체성: *a(n)*]의 맥락에서 가장 혼동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작문시험에서 학습자들은 명사구에서 부정관사 *a(n)*을 정관사 *the*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명사구 앞에서 관사를 두드러지게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L1-한국어 L2-영어 고등학생들은 [±한정성]보다 [±구체성]의 맥락의 습득을 더욱 어렵게 느끼고 [-한정성]의 맥락을 단수명사의 수량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one)의 개념과 연동하며 부정관사 *a(n)*을 정관사 *the*보다 먼저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과서 분석과 더불어 L2-영어 관사선택과 습득순서를 설명하는 언어적 이유와 교육학적인 함의가 자세히 논의되었다.

Key words: Definite article, Indefinite article, Definiteness, Specificity, Omission / 정관사, 부정관사, 한정성, 구체성, 누락

Examples in: English, Korean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 education

Kim, Hanbyeol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61186

TEL: (062) 530-3150

E-MAIL: hbkjh1208@naver.com

Baek, Seung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61186

TEL: (062) 530-3169

E-MAIL: sh3940@jnu.ac.kr

Received in October 10,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October 31, 2022

Revised version accepted in November 02, 2022